

'장외 0선' 정치 입문 8개월만에 초고속 대권

윤석열 정치입문에서 당선까지

'조국사태' 반발 검찰총장 사퇴 지난해 7월 국민의 힘 입당 경선 거쳐 대권 후보 선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서울 신림동에서 9수 하던 시절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신림동 신선'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장외 0선' 출신으로서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썼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서 외해된 보수 진영을 재건할 '구원 투수'로 등극한 것이 한국 정치사의 '이변'을 낳은 신호탄이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에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 된다.

앞선 13~19대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회의원직을 최소 1차례 이상 경험했고 대부분

당대표까지 역임하며 여의도 정치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의회 정치 경력이 전무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0선'이긴 마찬가지였으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장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수년간 이름을 알려왔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이었다.

반면, 평생 '검찰 공무원'으로 지내온 윤 당선인은 난생 첫 공직선거 출마가 '대선'이었다. 첫 도전에서 승리해 초고속으로 정외대로 직행하는 최초의 기록을 쓴 셈이다.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에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년이었다. 정치권 입문부터 따지면 불과 8개월여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밀어붙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면충돌한 윤 당선인은 작년 3월 4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닦아 남기고 전격 사퇴했다.

이후 약 4개월 만인 작년 6월 29일 '정권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대선 도전을 선언했고 한달 뒤인 지난해 7월 30

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그로부터 불과 석달만인 작년 11월에는 당내 경선을 거쳐 제1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본선에서 만난 이 후보를 꺾고 4개월여 만에 대권 고지에 올라섰다.

정석 정치코스를 밟지 않은 '장외 0선'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그만큼 기성 정치권, 이른바 '여의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비토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0선 주자'가 동시에 꺾었을 때부터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러한 믿음을 잃은 듯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본인이 여의도 정치를 모르고 정치 세력도 없는 '정치 신인'이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강점으로 내세워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유세에서 "저는 여의도의 문법도, 여의도의 선행도 모르는 사람이다. 국민 말고는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어떠한 패거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치인의 필수 코스로 여겨져 온 국회법을 거치지 않은 만큼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초등학생 시절 김포공항에서 출장을 앞둔 아버지와 함께 사진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의정 경험이 전무한 윤 당선인이 내각 구성, 당·청 관계 정립, 야당과의 협치, 입법 공조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값 폭등,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야당과 협치·국민통합·정치개혁 풀어야

새 대통령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협치를 통해 거대 야당과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하는 등의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부동산 값 폭등,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 등 당장 풀어야 할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번 대선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정권 초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으로서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집권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 등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국민통합과 협치, 정치개혁 등 힘겨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에 윤 당선인도 당선에 확정된 이후 첫 행보를 통해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10일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말리라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앞으로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민주당과의 협치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외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통해 두드러진 지역간·세대간·성별 분열 양상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시, 세종시, 제주도를 제외한 10곳에서 승리했다. 윤 당선인은 60대 이상에서는 크게 앞섰지만 40~50대에서는 크게 뒤졌다. 20~30대의 경우 남성의 표는 얻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대장동 의혹 등 서울 정권교체 민심이 승부 갈랐다

승리 배경

윤 당선인의 승리 배경에는 민심 저변에 정권교체의 흐름이 그만큼 강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50% 이상의 정권교체에 대한 민심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면서 0.8% 포인트 차이의 어려운 신승을 거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 민심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데다, 2년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되레 집권세력 심판론으로 민심의 무게추가 윤 당선인에게 쏠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이슈가 핵심이었던 서울 민심이 윤 당선인으로 기울면서 초박빙 차이의 신승

을 거둔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세했었지만,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서울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었다. 여기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이 후보가 당선될 만큼 민심의 신뢰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와 오락가락한 정부의 방역 정책 등도 정권교체론에 무게를 더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윤 당선인이 어려운 승부를 했던 점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진보진영의 내로남불, 대장동 의혹 등의 각종 호재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장모 등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중도층의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당선인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보수진영으로선 이번 대선으로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석열 당선인이 걸어온 길

1960년 12월18일 서울출생	1983 서울대학교 법학과졸업	198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졸업
2012 김진희 여사 결혼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검 검사	1991 제33회 사법시험합격
2013 국기정보원 여론조사팀장 특별수사팀장	2016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별검사실 검사	
2019 제43대 검찰총장	2017 제59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2021 검찰총장 사퇴, 대통령 선거출마 선언, 국회의원 입당 및 대통령 후보 선출		
2022 3월9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급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양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브릭 129㎡(39평)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산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너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양도 부지(주거 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점 남향 교통요지 시가지인접
다가구 사옥 다양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층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기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홍주 010-3454-2389

대영공인중개사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분할합병에 따른 재산보호 및 주권재주 공고

당 회사는 2022년 3월 4일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만당'(이하 존속회사)의 사업부분 일부를 인적분할하여 '대성유리공업 주식회사(에)으로 분할합병을 하고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분할부분을 합병하는 '대성유리공업 주식회사'는 분할전 존속회사(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만당)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채권자는 이를, 주주는 주권을 공고제외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1일
"분할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만당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31 (운남동)
대표이사 김 병우

"분할합병회사" 대성유리공업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31 (운남동)
사내이사 김 병우

산행안내

3월13일(일)
▲광주Kj산악회 3월13일(일) 원주"소금산"간현봉"산행&출렁다리장도길"트레킹 *염주체육관05:00,동야병원05:05,롯데백점05:10,광주역05:15,문예후문05:25,비엔주자점05:30 * 다음 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힐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허 안 955-0451 • 광 산 944-0444